

2014. 12

2014. 12.17.(수) ~ 12.22.(월)(4박 6일)

## 2014년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결과보고서

- 연수목적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관광산업 견학  
문화 탐방을 통한 라오스 문화 이해
- 연수국가 : 라오스(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 연수인원 : 10명 (총무담당관실6, 의사담당관실 2, 운영수석전문위원실2)



전라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 목 차

<b>제1장 연수개요</b> .....	<b>1</b>
① 목    적 .....	1
② 현    황 .....	1
③ 내    용 .....	1
④ 연수자명단 .....	1
⑤ 주요일정 .....	2
<b>제2장 라오스 주요현황</b> .....	<b>3</b>
① 일반현황 .....	3
② 세부현황 .....	6
<b>제3장 연수내용</b> .....	<b>10</b>
① 방문지역 현황 .....	10
가. 비엔티엔 .....	10
나. 루앙프라방 .....	12
다. 방비엥 .....	14
② 방문기관 .....	16
가. 루앙프라방 관광청 .....	16
나. 라오스 한인회 .....	17
다. 몽족마을 .....	21
<b>제4장 연수후기</b> .....	<b>22</b>
□ 라오스 연수를 마치며 .....	22

# 제1장 연수개요

## 1 목 적

- ◆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여 도시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생태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라오스 관광산업을 살펴보고
- ◆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관광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

## 2 현 황

- 연수기간 : 2014. 12. 17(수) ~ 12.22(월) / 4박 6일
- 연수지역 : 라오스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 연수인원 : 10명(총무담당관실 6명, 의사담당관실 2명, 운영수석전문위원실 2명)

## 3 내 용

- 라오스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자료 수집
-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루앙프라방 지역 등의 관광상품 및 관광도시 성공사례 조사
- 라오스 한인회 방문을 통한 현지 상황 청취 등

## 4 연수자 명단

부 서	직 급	성 명	비 고
총 무 담 당 관 실	행정5급	나 종 채	단장
〃	〃	이 동 희	
〃	행정7급	이 관 영	
〃	사서7급	최 승 순	
〃	운전7급	한 길 수	
〃	청원경찰	이 재 봉	
의 사 담 당 관 실	행정6급	김 오 신	총무
의 사 담 당 관 실	속기7급	박 순	
운 영 수 석 전 문 위 원 실	행정6급	정 선 수	
운 영 수 석 전 문 위 원 실	〃	전 소 영	

## 5

## 주요일정

일자	방문지역	일 정	비 고
2014 12.17 (수)	전주, 인천 ⇒ 비엔티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회 집결 후 출발(11:30)</li> <li>○ 인천 국제공항 출발</li> <li>○ 비엔티엔 왓타이 국제공항 도착</li> <li>○ 호텔 투숙</li> </ul>	1일차
12.18 (목)	비엔티엔 ⇒ 루앙프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조식</li> <li>○ 이동(비엔티엔→루앙프라방)</li> <li>○ 루앙프라방 관광청 방문</li> <li>○ 왓시엥통 사원 견학</li> <li>○ 루앙프라방 왕궁박물관 방문</li> <li>○ 산림공원(꽝시폭포) 관람</li> <li>○ 호텔 체크인</li> </ul>	2일차
12.19 (금)	루앙프라방 ⇒ 방비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밭 체험 및 왓마이사원 견학</li> <li>○ 호텔 조식</li> <li>○ 새벽시장 견학</li> <li>○ 이동(루앙프라방→방비엥)푸비양과 휴게실 중식</li> <li>○ 고산민족 몽족마을 방문</li> <li>○ 호텔 체크인</li> </ul>	3일차
12.20 (토)	방비엥 ⇒ 비엔티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조식</li> <li>○ 몬도가네 새벽시장 견학</li> <li>○ 물동굴 체험 및 코끼리 동굴 견학</li> <li>○ 카약 레프팅 체험</li> <li>○ 젓갈마을 방문</li> <li>○ 몽족 최대시장 락52방문</li> <li>○ 이동(루앙프라방→비엔티엔)</li> <li>○ 라오스 한인회 방문 간담회</li> <li>○ 호텔 체크인</li> </ul>	4일차
12.21 (일)	비엔티엔 ⇒ 인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조식</li> <li>○ 왓씨싸켓사원</li> <li>○ 빠뚜사이</li> <li>○ 소금마을, 불상공원</li> <li>○ 탕루앙사원</li> <li>○ 비엔티엔 국제공항 출발</li> </ul>	5일차
12.22 (월)	인 천 ⇒ 전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국제공항 도착</li> <li>○ 전주 도착(14:00)</li> </ul>	6일차

## 제2장 라오스 주요 현황

### 1 일반현황

국 명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위 치	북위 13° 54' ~22° 30' , 동경 100° 05' ~107° 38'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
시 차	우리시간 -2
면 적	236,800km <sup>2</sup> (한반도의 약 1.1배), 국토의 70%가 산악지대
민 족	라오름(50%), 라오퉁(30%), 라오슝(10%) 등 49개 소수민족(10%) (2008.12/라오스 국회 채택)
언 어	라오어 : 6성조가 있는 말로 태국어(5성)와 유사
종 교	불교(90%), 정령신앙, 기독교(포교 불허)
기 후	연 평균 기온은 28℃, 5-10월 우기, 10- 4월 건기
인 구	660만명(2013)
수 도	비엔티안(Vientiane)
국가형태	공화국(75년 12월2일 건국)
주요인사	대통령 : 춤말리(Choummaly Sayasone) 총 리 : 통싱(Thongsing Thammavong) 부통령 : 분냥(Bounnhang Vorachit) 국회의장 : 파니(Pany Yathortou) 부총리 겸 외교장관 : 통룬(Thongloun Sisoulith)
정부형태	1당제(라오인민혁명당) 국가
행정단위	16개 주 및 1개 특별시로 구성
국내총생산(GDP)	USD 111억불/ 1인당 GDP 1,673불(2013년)
경제성장률	8.1%(2013년)
화폐단위	킵(Kip), 1kip=0.14원(14.12.기준), 1\$=7,970Kip(2012.12.기준)
국 경 일	12월 2일(건국기념일)

## □ 라오스 국기, 국화, 국가 문장

	<p>청색은 라오스 국토의 광대함과 번영을, 적색은 라오스인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용기를, 중앙의 흰 원은 라오스인의 순수한 마음과 건강을 상징한다.</p>
	<p>라오어로는 독짬빠(Dok Champa)라고 발음한다 영문으로는 프랜지파니(Frangipani), 일반적으로는 풀메리아라고 불린다.          향기가 좋은 협죽도과의 상록수 꽃이다. 색깔은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등이 많다. 흰색이 바탕에 있고, 꽃술이 노란색인 청초한 느낌을 주는 종류가 라오스 정식국화이다.          사원경내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가로수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라오스 사람들에게 이 꽃의 꽃말은 “삶의 기쁨과 진심” 이다</p>
	<p>중앙 하단의 붉은 띠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양 옆에는 반원형의 벚단을 두르고 이를 감싼 리본에는 '평화, 독립, 민주주의, 단결, 번영'을 표기          가운데에는 라오스 불교의 상징인 탃 루앙 불탑임</p>

## □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지역              북부의 중심도시는 루앙프라방이고 루앙프라방주(주도:루앙프라방), 루앙남타(주도:루앙남타), 보계오(주도:후아이사이), 우돔사이(주도:우돔사이), 싸야부리(주도:싸야부리), 후아판주(주도:삼느아), 썽광주(주도:폰사완)</li> <li>● 중부지역              수도인 비엔티엔 광역시, 비엔티엔 주위에서 북부 카시까지 비엔티엔주(주도:폰홍), 비엔티엔 남쪽의 불리캄사이(주도: 뻑산), 캄무안주(주도: 타켓), 싸이솜분 특별주(주도:싸이솜분)</li> <li>● 남부지역              참빠삭주(주도:팍세), 사바나켓주(주도:사바나켓), 사라완주(주도:사라완), 썬콩주(주도:썬콩)</li> </ul>
---	---

## □ 국토와 지형

- 산지가 70%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라오어로 “싸타라랏 파사티파타이 파사손라오”, 줄여서 소포포 라오“라고도함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

동쪽엔 베트남(236km), 서쪽엔 태국(1,835km), 남쪽엔 캄보디아(491km), 북쪽에는 중국(416km) 및 버마(236km)와 접하고 있다

전체길이가 약1,700km에 달하는 남북으로 긴 국가다.

총 면적은 23만6,800km<sup>2</sup>이며 약70%가 산악지대이고, 특히 북부와 동부는 험난한 산들이 자리잡고 있다.

- 메콩의 라오스

거대한 메콩강은 서쪽에 태국과 국경을 형성하고 있다. 라오스 영내를 흐르는 메콩강의 길이는 1,898km이고 라오스 농업과 어업을 다양한 형태로 지탱해 주고 있다. 남단에서 강폭이 20km로 넓어지고 씨판돈(4,000개의 섬)이라 불리는 수많은 섬들이 자리잡고 있다.

- 산악, 고원, 평야

평야부는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베트남과 국경은 1,000 ~ 2,000km의 산악지대로 루앙산맥(베트남에서는 안남산맥이라 불림)이 있다. 고원부 가운데에서는 중부 가까이 고원과 블라웬 고원이 크다. 평야부는 모두 메콩강 지류가 흘러가는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위양짠 평야는 남늬 강 하류에 펼쳐진 라오스 최대의 평야다. 중부의 싸완나켓 평야는 쉐반파이 강과 쉐반히안 강 하류에 있다. 짬빠썩 평야는 메콩강 남단에 펼쳐져 있고, 이 평야들은 강가에 인접해 토양이 비옥하다. 라오스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 2 세부 현황

### □ 라오스의 중요성

-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기회의 땅
  - 매년 7~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최빈개도국 탈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3. 2월 WTO 가입, 교역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등 경제 개방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5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인프라 완비시 인도차이나 반도의 물류이동중심지로 성장 가능
- 수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의 마지막 블루오션 국가
  - 메콩강의 최장 관통국가로 수자원이 풍부하여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인근 국가로 수출하면서 동남아의 배터리 역할 수행
  -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나 아직 개발되지 않아 잠재력이 매우 많음
-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극소수 국가중 하나
  - 1960년대부터 1975년 공산정권 수립시까지 인적·물적 지원에 따른 역사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혁명 1세대가 정·관계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실익과 무관하게 북한과 교류관계 지속
  - 남북 현안 발생시 엄정 중립을 유지, ASEAN 내에서 친북 성향 국가로 분류

### □ 라오스 민족

- 민족수는 분류방식에 따라 다르며, 대표적으로는 거주하는 지역의 해발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라오룸(저지 라오인) : 약60%, 해발400m이하의 산간지역에 거주
- 라오퉁(구릉 라오인) : 약30%, 해발400m~900m의 산기슭에 거주
- 라오쑹(고지 라오인) : 약10%, 해발900이상의 산간부에 거주

### □ 라오스 국민성

- 불교문화 영향에 따라 안빈낙도의 삶 추구
  - 불교문화에 따라 현세의 지위와 운은 그사람 전생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운명론적 사상에 익숙, 현세의 업을 승려나 사원 또는 불우이웃에 대한 공덕 쌓기를 일상화

## □ 라오스 체제 및 주요 산업

### ● 정치구조

- 인민혁명당 일당체제하에서 대통령이 당서기를 겸임하고 있으며, 총리, 국회의장 등 정부요직을 겸하는 당 정치국원 11명이 주요 정책 결정

### ● 경제구조

- 내륙국이자 인구 650만의 소국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최빈개도국
- 제조업 미발달로 소비재 대부분을 태국등 주변국에서 수입
- 1986년 경제개방 이래 매5년마다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최빈국 지위 탈피가 최우선 국가목표
- 2006~2011 연평균 7.5%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2012년에는 광산 및 수력발전
- 라오스 주요 산업은 농업, 국민의 약80%가 농업에 종사하며, 주요 농작물은 자급용 찹쌀이고, 그 외에 옥수수, 담배, 면화, 커피등을 재배한다. 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도 활발했고, 천연수지, 약초, 작은동물과 곤충 등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산물도 예로부터 중요한 교역품이자 식량이 되고 있다.
-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있는 산업은 전력산업(수력발전), 의류가공업,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업, 두 개의 세계문화유산과 불교문화를 통한 관광업, 구리 금등의 광산업 등이 있다.
- 특히 메콩강의 약60% 수량이 라오스 산에서 흘러 내려오고 있어 엄청난 수량이 수력발전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큰 잠재력 가지고 있는 전력산업은 큰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라오스를 동남아시아의 전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댐 개발도 많이 계획되어 있지만, 자연을 보호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두 문제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 ● 행정구조

- 16개 주 및 1개 특별시로 나뉘어져 있고, 크게 북북, 중부, 남부로 나뉨
-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체계와 같이(광역시·도·시·군·구,면,동,리) 라오스도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는 쁡(주), 무앙(군,구), 반(마을)으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 보다는 법정동이 한 단계가 적는데 인구가 적어서 촌락이 별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 마을의 대부분이 길옆 도로의 양옆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
- 수도 비엔티엔에 루앙나콘 비엔티엔 무앙 찬타블리 마을(반) 하이속 이를 우리나라 법정동으로 해석하면 비엔티엔광역시 찬타블리구 하이속 마을임.

반(마을)의 우두머리(촌장)은 라이반이라고 호칭하며 권한은 우리나라의 동장보다도 월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함.

라이반은 담당마을의 입법·행정·사법·경찰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공산당원이라야만 그 직위에 오를 수 있다.

## ● 외교기조

- 평화, 자주, 우호, 협력관계 유지, 내정불간섭 원칙하에 균형적인 외교정책 실시
- 베트남 지원하에 공산화에 성공한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ASEAN회원국으로서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ASEAN차원의 공동 대응
- 최빈국 탈피를 위해 주요 원조국과 관계 강화에 주력하면서 각종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외교 지평 확대 도모(1997년 ASEAN가입, 2012 ASEM 정상회의 개최, 2013 WTO 가입)

● 시장 물가

- 견학일정중 시장과 마트에서 알아본 대략적인 물가임.
- 라오맥주 1병 1,100원, 오징어 6,500원, 갑오징어 5,800원, 가재등생선 2,000원(kg), 수박 800원, 감자 800원(kg), 망고 1,400원(kg), 파인애플 1,000원, 양파 700원(kg), 당근 1,000원(kg) 고등어외 생선 700원(kg), 닭 1,200원(한마리), 돼지고기 4,000원(kg), 소고기 10,000원(kg), 우유 3,000원(라오스는 생산하지 않고 태국산)
- 라오스에는 대형 할인마트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형태의 매장과 소규모 슈퍼가 전부임. 현지 생산하는 농산물은 가격이 저렴하고, 수입산도 의외로 물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라오스 관광관련 부처

부 처 명	위 치	전 화 (FAX)	웹사이트
정보·문화·관광부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Thanon Setthathirat, Ban Xiengyeun Tha, Muang Chanthaburi, Vientiane Capital	856-21-212-406 (Fax)856-21-212-401	<a href="http://www.mic.gov.la">www.mic.gov.la</a> (홈페이지 주소는 존재하나, 접속불가) * Lao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a href="http://www.tourism Laos.org">www.tourism Laos.org</a>



- 출처 : 라오스 대사관 홈페이지

# 제3장 연수내용

## 1 방문 지역 현황

### 가. 지구별에서 가장 느긋한 도시 비엔티엔

- 인 구 : 76만 9천명
- 면 적 : 3,920 km<sup>2</sup>
- 주요산업 : 제조업, 서비스업
- 특징 : 비엔티안은 라오스에서 가장 화려하고 오래된 도시로 라오스의 수도이다. 메콩강의 상류에 위치하며, 비엔티안에서는 메콩강 주변의 오래된 마을이 흥미롭고 매력적이다. 고사원과 나무들이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여 성벽을 쌓아 만들어 놓은 성 주위에 있고 성을 따라 늘어서 있다. 비엔티안은 프랑스에 의해 세워진 다른 아시아 도시처럼 거대한 규모의 대로는 없고 현대적인 도시이지만 진흙투성이의 메콩강의 독에 펼쳐 있는 이곳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하다. 또한 비엔티안주변에 위치한 남 음덤과왕위왕 역시 꼭 가볼 만한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 주요 관광지

관광지	설명	소요시간
	<b>왓 씨사켓 Wat Sisaket</b> 짜오아누 왕 King Chao Anou에 의해 1818년에 건설된 사원. 위앙짠에서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가장 오래된 사원이다. 이 사원은 총 6840개의 부처상이 있으며 18세기에 출판된 경전이 보관되어 있다. 이곳은 1940년 오사카에서 열린 엑스포에 나올 정도로 라오스를 대표할 만한 곳이다. 초기 크메르왕국의 불상도 찾아 볼 수 있다.	관람:30분 시내
	<b>빠뚜싸이 Patuxai</b> 문자적인 의미는 빠뚜=문, 싸이=승리로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 따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 꼭대기 전망탑에서 비엔티안 시내를 조망할 수 있다.	관람:20분 시내


	<p><b>탓 루앙 That Luang</b>          탓 루앙은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불교 유적으로 국가의 상징이며, 부처님 가슴뼈 사리가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          미얀마 식 불탑이다. 최근에 재건한 것이다.</p>	<p>관람:30분          시내</p>
	<p><b>부다파크 Buddha Park</b>          1950년대 루앙 분르아 쭈리랏 이라는 조각가가 힌두와 불교의 원리를 형상화 한 곳이다.          거대한 와불상 이외에 여러 가지 불상들이 눈에 띄지만 시바, 비쉬뉴, 안주나 같은 힌두 신들로 조각되어 있다.</p>	<p>관람:40분          왕복 1시 30분          40K 외곽</p>
	<p><b>탕원 선상식사</b>          주문한 음식이 차려지면 배는 남릭강 으로 나가게 된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강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서 즐기는 식사는 한시름을 덜게 하여준다.</p>	<p>식사:1시간          왕복 2시간          50K 외곽</p>
	<p><b>파퓏 민속쇼 디너</b>          라오스의 여러 민족의 전통춤 공연, 노래, 악기 연주와 결혼식 퍼포먼스로 마무리 되는 전통공연은, 무용수와 관람객 사이의 거리가 없어 내용과 형식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라오스 국립무용단원으로 구성된다.</p>	<p>관람:1시간          디너 &amp; 공연</p>
	<p><b>혁명박물관</b>          1925년 프랑스 총독 관저로 지어졌으며, 1985년 혁명박물관으로 바뀌었다.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의 유물과 그림 및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p>	<p>시내          관람: 40분</p>
	<p><b>소금공장</b>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으면서 소금을 생산 한다. 비엔티엔 근교에 3개의 소금 공장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지하의 물을 끌어 올려 쇠솥에 끓여 얻어내는 소금으로 요오드가 없어 갑상선 환자에게 필요한 소금이 될수 있겠다.</p>	<p>이동:30분          관람 20분</p>
	<p><b>젓갈마을</b>          남נם호수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이용하여 젓갈을 담가 판매하는 마을이다.</p>	<p>이동:1시간          관람 20분</p>
	<p><b>달랏싸오</b>          한국의 동대문 또는 남대문 상가에 해당되며 라오스내 최대 실내상가로서 장미목 공예, 민속의류, 종이전등, 생활용품을 망라한 선물가게 등이 있으며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한다.</p>	<p>시내          관람 30분 이상</p>

## 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천년고도 루앙프라방Luangprabang

- 면 적 : 16, 875 km<sup>2</sup>
- 주요산업 : 관광산업
- 특징 : 루앙프라방은 우리나라의 경주에 비견될 만한 라오스의 역사도시다.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라오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도시로, 라오스 최초의 통일왕국 란쌍의 수도로 지정 된 이후 800여 년 간 그 영예를 지켜오던 곳이다. 1995년 도시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그리 크지 않은 시내에 80여 개의 절이 있다. 현재 세계 각지로 부터 여행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루앙프라방의 아름다운 사원과 목재 건물, 식민지 시대의 집, 식물과 바위의 조화가 뿜어내는 걸출한 자연경관은 세계 문화유산지로 지정되는데 부족함이 없다.



- 주요 관광지

관광지	설명	소요시간
	<b>왓 시엥통 Wat Xieng Thong</b> 1560년 셋타티랏 왕에 의해 세워진 사원으로 황금도시의 사원이라는 뜻으로, 왕의 부속 사원으로 왕의 장례식에 사용되는 수레가 있다. 라오스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사원. 경내에는 우아한 지붕이 낮게 깔려있는 본당인 ‘쌈sim’을 포함해 작은 보물 상자처럼 반짝이는 모자이크가 조각된 불당까지 무척이나 우아하고 섬세하게 꾸며져 있어 루앙프라방 사원의 진수를 보여준다.	시내 관람 20분
	<b>왕궁 박물관 Royal Palace Museum</b> 이전의 왕궁이었다가 지금은 박물관인 이곳은 스파르타 양식의 프라이 비트 숙소가 있다. 또한 금과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리셉션 룸이 있다. 사방 바타나왕의 개인 소유물 중에는 마로로부터 받은 찻잔, 긴든 존슨으로 부터 받은 메달, 아폴로 우주선에 실려 달까지 가져가진 라오스 국기 등이 있다. 로얄 챔버에는 루앙프라방의 유래에 근거가 되는 83cm, 50kg에 달하는 금부처상, 푸라방(파방)이 있다. 또한 14세기 앙코르에서 가져온 시의 이름판이 있다.	시내 관람 30분

	<p><b>황씨 폭포 Khang Xi Waterfall</b> 주변에 자연림이 우거져 있고 여러 단으로 구성된 폭포의 형상 자체가 매우 아름다워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유원지이다. 석회동굴에서 흘러나온 옥빛의 물색깔이 아름답다. 수영이 가능하다.</p>	<p>관람 1시간 왕복 2시간 29K 외곽</p>
	<p><b>왓마이</b> 땅에서 하늘로 드라마틱하게 경사진 다섯겹의 지붕으로 된 고전적 구조물이다. 1796년 건축, 전통적인 루앙파방 스타일과 순수 라오스 디자인이 잘 나타나 있는 사원으로 이 사원을 완성하는 데는 70년이 걸렸다. 1950년 스리랑카에서 전래된 파방 불상(50kg 금으로 된 불상)이 1894년 까지 이곳에 보관되었다가 지금은 국립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 구정에는 파방을 이곳으로 옮겨서 향수와 꽃을 탄 물로 파방을 씻으면서 소원을 비는 행사가 있다.</p>	<p>시내 관람 30분</p>
	<p><b>몽죽 야시장</b> 국가에서 소수민족 몽죽 들을 위하여 왕궁 박물관 앞거리엔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전기등을 무료 공급해주고 있으며, 저렴하게 종이우산, 목제조각, 목제그릇, 손으로 직접 만든 옷, 그림 등을 구입할 수 있다.</p>	<p>시내 관람 40분</p>
	<p><b>탁밭과 싸이밧 행사</b> 매일 오전에 6시 30분경 루앙프라방 시내에 있는 사원 60여개의 사원에 머물고 있는 스님들이 새벽예불을 마치고 아침 탁밭을 나오는데 약 4-500명의 스님들이 탁밭행렬에 참석한다. 남방불교의 특징은 오후불식(하루에 2번 공양 -오전에 2번)이다. 탁밭을 나올때에는 맨발로 나온다.</p>	<p>시내 관람 30분</p>

## 다. 레크레이션의 명소 방비엥(비양찬 주)

- 면 적 : 22,554 km<sup>2</sup>(지역의 2/3은 산지, 1/3은 평원)
- 주요산업 : 관광산업
- 특 징 : 방비엥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과 천년고도 루앙프라방 구간을 연결하는 이동로 상에 있는 작은 시골마을이다. 비엔티안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메콩강이 관통하는 석회암 카르스트지형으로 오래전부터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라오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꼭 찾아오는 필수 관광지이다. 카르스트지형 특성으로 특이한 모양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으며, 수많은 동굴이 분포되어 있다. 이를 중국의 계림과 닮았다고 해서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소계림 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트레킹, 자전거 여행, 남송 강에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내려가는 튜빙과 카약, 파 탕(Pha Tang) 절벽 감상, 지역의 생활 방식 엿보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강 양 옆으로는 초록의 숲이 펼쳐져 있다. 이는 안락한 휴식과 캠핑, 소풍에 더 없이 적합하여 방비엥으로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 주요 관광지

관광지	설명	소요시간
 	<p><b>카약투어 &amp; 리버 점프(방비엥 관광의 하이라이트)</b>                      카약투어는 몸소 노을 저어서 송가를 내려오면서 산수를 체험하는 투어이며, 카약전문가이드가 동승하며 약2시간 체험 진행한다. 방비엥 투어의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길 점프코스로 그네 또는 점프대를 이용해서 강으로 뛰어내리는 코스로 수량에 따라 운영한다. 희망자에 한해 구명재킷을 착용하고 점프한다. 우천시에는 롱테일 보트로 대체한다. 반드시 수영복 또는 반바지를 지참하여야 한다.</p>	약 2시간 송 강

	<p><b>탐쌍</b> 방비엥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많은 동굴이 있으며, 탐쌍동굴 근처의 자연경관은 하나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동굴에 들어가면 송강과 방비엥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도 있다.</p>	<p>이동 15분 관람 30분</p>
	<p><b>아침시장 몬도가네</b> 방비엥 주민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의 재래시장과 유사하다. 특히 이곳에서는 방비엥 밀립지역에서 사냥하거나, 채집한 각종 동식물을 파는 것을 볼 수 있다</p>	<p>시 내 관람 20분</p>
	<p><b>탐쌍(코끼리 동굴)</b> 탐남동굴 가는 입구에 있으며, 석회암 동굴로 와불상과 코끼리형상의 종유석이 있는 동굴이다</p>	<p>시내 15분 관람 10분</p>
	<p><b>탐남(물 동굴)</b> 석회암 동굴이며 입구가 반쯤 잠겨 있어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넣은 것을 타고 동굴 탐험한다.</p>	<p>시내 15분 관람 30분</p>

## 2 방문 기관

### 가. 루앙프라방 관광청

#### □ 방문개요

- 일 시 : 2014. 12. 18(목) 14:00 ~ 15:00
- 장 소 : 관광청 홍보실
- 면 담 자 : 관광청 홍보국장, 여행 및 호텔관리부국장
- 주요내용 : 라오스 한국관광객 동향, 루앙프라방 관광 산업

####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광 정책이 있는가?
  -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순수한 자연 환경을 자연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책이라면 정책이다.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최근 한 라오스 직항 개설과 “꽃보다 라오스”라는 TV 프로그램 방영 등으로 방문객 수 급증
  - 한국인 라오스 관광(방문) 추이 : 1만명(02년) → 8만 1천명(13년)
- 한국인 상점수 : 루앙프라방내 한인식당 2개, 2개 허가 진행중
- 라오스내 한국관광회사 :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60개 정도로 최근 늘어나고 있으나 원래는 태국등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 지역 비수기에 라오스에 와서 활동하고 있어 체계적이지는 않음
- 한국인들이 라오스에 대한 문화 및 관광객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라오스의 관광대책은 무엇인가?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루앙프라방의 팡시폭포에서 한인 관광객이 수영 중 사망해 관광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방문객 안전에 주의하고 있으며, 사례로 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하여 산림공원내 팡시폭포 근처에 안전을 위해 수영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 라오스는 현재 남·북한 모두 수교중이며, 남한보다는 북한과 더 상호교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향후 대한민국과 상호교류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 라오스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 국민에 매우 호의적이다. 현재는 대한민국과의 상호교류가 더 활발하다. 향후에도 더 많은 교류를 희망한다.
- 전라북도청이 위치한 전주시는 한옥마을 등을 잘 보존하고 있어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같은 도시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문화·관광도시이다. 여건이 되면 향후 전주 한옥마을 등을 견학하러 한국에 오길 바란다.
  - 우리 라오스도 대한민국과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한다. 기회가 된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을 위한 시설등이 부족한 상황등을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 관광정책을 배우도록 하겠다.
- 대한민국 국민의 최근 TV방송에서 소개된 뒤로 라오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 라오스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라오스 정부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 라오스 정부는 대한민국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준비를 할 것이다. 양국 간의 더 많은 우호 협력을 바란다.

## □ 방문사진



## 나. 라오스 한인회 간담

### □ 방문기관 현황

- 설립 일 : 1996년 창립
- 성격 및 활동
  - 교민간의 친목과 화합 도모, 라오스 내 교민의 권익 신장
  - 한국과 라오스간 민간 교류에 집중하여 교민들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양국간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음
- 조 직 :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이사, 청년회장 등
- 주 소 : Vientiane Plaza Hotel Sailom Road , Hatsady Village Vientian Capital , LAO P,D,R
- 홈페이지 : <http://homepy.korean.net/~laos1/www/>

### □ 간담개요

- 일 시 : 2014. 12. 20(토) 19:00 ~ 20:00
- 장 소 : 라오스 한인회 사무실(비엔티엔 소재)
- 면 담 자 : 한인회장 정우상
- 주요내용 : 라오스 한인회 운영 및 활동상황, 애로사항 청취
- 한인회 운영 및 활동상황 설명
  - 라오스내 한국인 현황, 한인회 활동, 라오스 문화에 대한 청취
  - 교민 화합을 위한 노래자랑 등 문화체육 행사, 한글학교 및 책나눔터 운영

###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라오스 내 한국인 현황은?
  - 라오스내 한국인 교민은 대략 2,000명 정도 되며,
  - 1,600명 ~ 1,700명정도가 비엔티엔에 살고. 무역업 종사자나 국내 공·사기업 주재원, 봉사단원, 선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12년 3월부터 한-라오스간 정기항공 “진에어”가 개설됨에 따라 교민과 라오스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비엔티엔내 한인식당은 2012년 9개에서 2014년 30개로 대폭 늘어남
- 전 전북도부지사였던 한명규부지사께서 LAO Economy Dairy 발간
- 정우상 한인회장께서는 한인회장 말고 다른 활동도 하시는지?
  - 2004년 중고차 무역업을 하러 라오스로 와서 현지인과 결혼 후 자동차 판매·정비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한인회장께서 말하는 라오스는?
  - 흑백 TV없이 칼라 TV로, 유선없이 무선으로, 집전화 없이 휴대폰으로 너무 빠른 변화의 나라, 아날로그 시대 없이 디지털 시대를 맞은 나라이다.
  - 공식적인 집회가 불가능한 나라, 한인들 모임시 한인회에서 허가 하고, 모든책임은 한인회가 져야 한다.
  - 웃음속에 비수가 있는 나라
  - 3무의 나라(상가 곡소리가 없고, 자동차 크랙션 소리가 없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없다)
  - 라오스는 기회의 땅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서류작업이 지루할 만큼 길고 제한사항도 많은 반면 정책이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아 안정적이라 많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라오스에 진출해 국가의 위상을 높여줬음 하는 바람이 있음
- 라오스 한인회만의 특별한 활동상황이 있다면?
  - 교민 화합을 위한 노래자랑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사관과 기업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서로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도 함
  - 라오스 대사관과 적극 협력하여 교민의 안전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라오스생활 중 교민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 교육문제 : 라오스는 공립학교 교육수준이 매우 낮아 대부분 교민의 자녀들은 수도인 비엔티엔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음, 한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가 있지만,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전달이 쉽지 않음

- 의료 문제 : 수도인 비엔티엔에서조차도 한국처럼 전문성을 가진 응급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고, 의료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중대한 병이 있는 경우 한국으로 나가서 치료하고 들어온다. 비엔티엔 수도에 사는 라오스의 부유층들은 태국이나 한국 등 선진의료시스템이 있는 곳에 가서 치료 받고 온다.

## □ 시사점

- 한인회가 라오스 대사관등과 적극 협력하여 교민 사회 안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 현지에는 서점도 많지 않고 한국어 책을 구하기 쉽지 않음으로 교민 자녀들이 라오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중고책을 수집 전달하는 등 지원이 필요함
- 라오스의 의료는 매우 열악하여 교민은 인근 태국의 병원을 이용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라오스내에는 응급환자 발생시 치료 및 관리할 전문의료진 및 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충으로 무엇보다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됨.
- 전북지역 동부 산악 권역 등도 의료 및 교육 취약지역으로 도 차원에서 교육과 응급의료체계 점검과 지원에 적극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방문사진



## 나. 몽족마을

### □ 방문개요

- 일 시 : 2014. 12. 19(금) 15:00 ~ 15:40
- 장 소 : 몽족마을
- 주요내용 : 문화·관광자원 현지 방문 및 체험

###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전 세계 관광객이 교통여건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곳 고산지역 마을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 ▶ 라오스의 문화·관광 정책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자연의 신비와 인간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본성을 자극하는데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유인 것 같다.

### □ 시사점

-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중앙부에 있는 내륙지역 전국토가 70%가 산악지역으로 휴양문화의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함으로, 고산지역, 자연환경 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관광문화를 육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 □ 방문사진



## 제4장 연수후기

---

### 힐리의 땅 라오스

---

2008년 뉴욕타임지에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나라 1위에 선정되었고 영국의 전문여행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1위에 6년 연속 1위에 올랐다는 라오스는 산악지대가 70% 차지하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있지 않은 내륙국가로 험한 산지와 넓게 펼쳐진 고원들 사이로 구불구불 굽이져 흐르는 메콩 강이 항공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과거 많은 나라들에 의해 무수한 침략을 받으면서도 깨끗하게 독립국으로 남았던 라오스, 마치 타이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역사나 시간이 머무르고 욕망이 멈춰 있는 곳, 소나 강아지 등 동물들과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다.

첨단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바쁜 일상에서 쫓기다 라오스에 와서 1980년대 어렸을 때를 추억하며 여유로운 일상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라오인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매캐한 먼지를 가르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동차, 오토바이 행렬, 저분한 옷 등 각박하고 빈곤한 삶인 것 같은데 해맑은 사람들의 미소가 내 생각을 깨뜨렸다. 이방인을 대하는 경계의 표정이 아닌 미소부터 지어주는 사람들을 보며 이곳을 힐리의 땅이라고 하는 이유를 새삼스럽게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 공복으로서의 소명감을 찾고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연수지로 라오스가 확정되었다. 라오스를 뉴욕타임즈가 세계여행지 1위로 선정했다지만, 사회주의라는 선입견과 후진국이라는 인식이 앞서 우리가 과연 벤치마킹 할 것이 있을런지 의문이 먼저 앞섰다.

여행이라면 몰라도 공적인 벤치마킹을 위하여 떠난다는 부담감을 안고 출발한 라오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수속을 밟고 게이트로 향했다. 출국장 2층 창문에서 바라 본 라오스행 진에어 비행기, 바로 옆 다른 비행기에 비해 크기부터 무거운 마음만큼이나 초라했다.

전라북도 공무원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대한민국 전라북도를 떠나 넓디넓은 지구의 한 귀퉁이 어딘가에 내가 존재한다는 자존감과 또 다른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보고 느껴서 대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인생의 소중한 선물을 하나 가져오자 다짐했다.

인천공항에서 7시30분에 출발하여 5시간 반 정도 날아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늦은 밤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둘째 날 공항에서 다시 루앙프라방으로 이동하였다.

고색이 창연한 도시 루앙프라방에서 공식일정인 관공서 방문을 마치고 돌아본 시내의 모습은 메콩강과 황강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불교사원국가의 모습 그대로였다.

관공서의 목재 베란다 2층에서 내려다 본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냇을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수시로 오가는 거대한 오토바이 무리와 툭툭이 그리고 자동차들.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혼돈의 거리에서 도 여유있고 안전하게 교행하는 라오스인들을 접할 수 있었다.

무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질서, 그것은 양보와 느긋함이었다. 그것이 라오인들의 문화라고 나중에 들었다. 메콩강에서 고기잡

이하는 라오인들. 오늘 먹을 수 있는 필요한 만큼만 고기를 잡는다고 한다. 그들의 삶 속에 과욕이란 단어는 없다.

2km에 달하는 빼곡한 노점 야시장 거기서 거기 같은 상품들 과연 저 상품들이 팔리거나 하는지?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로움과 밝음이 보였다. 오늘 한개 팔았으면 그것에 감사한다고 한다.

다음날 새벽 승려들을 위한 길거리 공양행사가 같은 장소였다. 과연 이거리가 어제밤에 그토록 북새통을 이루던 야시장 그 거리인가 하고 의아해 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 선진국이라 자칭하는 우리가 본받아야할 공중도덕이라고 생각함.

메콩강의 부속강인 황강 주변에 게스트 하우스가 뽀뽀하게 들어차 있으나 조용하다. 라오민족의 조용함을 보는 것 같았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특징하나 필요한 모든 것이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시멘트는 그냥 집을 짓는다고 하면 1층만 하고 나머지 2층은 나무로 지어짐. 열대지방은 나무가 많고, 단단해서 못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함. 방문한 관공서 건물도 나무로 지어지고 내려오는 계단도 나무계단 이었다. 인공재료가 아닌 천연재료의 가치랄까.

라오스 비엔티엔 왕국의 왕 아누웁은 왕으로 계승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많은 전쟁으로 피난과 승전을 연속하다가 결국은 사형에 이르는 라오스의 최고 왕이자 전투사로 기억하고 있는 듯 왕궁박물관도 초라한 모습 그대로 였다.

라오스의 길거리는 다양한 인종에 거주하는 다국적 국가라는 느낌. 전통시장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원. 도시 전체의 10%는 사원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원이 많았다. 사원은 들어가 보면 거의가 비슷한 모습들임.

셋째날은 버스로 7시간을 넘게 산악도로를 구불구불 먼지 날리며 이동, 남부로 내려감. 포장된 일부 도로를 빼고는 주변은 모두 황토흙 먼지, 군데군데 있는 강물은 흙탕물. 라오스의 모든 것은 흙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물도 황토물이 되는 것 같다.

중간 중간 산속에 움막같은 마을을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는 몽족 동네에 잠시 견학과 함께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침. 과거 우리나라의 어려울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음. 다행히 라오스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외국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임.

넷째날 수도 비엔티엔으로 이동 재 라오스 한인회장과 환담함. 재 라오스 동포는 2,000명정라고 하며 주로 무역업, 자동차 매매, 차량정비,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잡아 간다고 함. 내년 1월달에 한인회 사무실도 이전을 한다고 함.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한인회 초청인사는 한국대사관, KOTRA, KOrao, 서부발전외 개인사업자 50여명정도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권익과 국력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함.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가슴 뿌듯함.

한인회장으로 부터 라오스의 역사가 1353년 란상 왕국에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1893년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49년 7월19일에 프랑스로부터 완전 독립했다는 말을 들었음. 그래서 그런지 라오스 거리와 호텔 곳곳에서 프랑스어가 많고, 프랑스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 역력하다고 느낌. 농업생활이 주고, 목재와 주석, 커피가 유명하다고 함. 아직은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 정도로 세계 최빈국 수준임을 알 수 있었음.

마지막날 비엔티엔 개선문 내부에서 본 상점의 일상과 맨위에서 바라다본 라오스 수도의 동서남북으로 정돈된 도로모습, 시내의 전망이 좋고, 낮은 빌딩과 건물들, 수많은 오토바이, 비좁은 도로망, 기간

시설들, 체구가 작고 항상 밝은 모습의 라오스 사람들 여유와 무질서 속에서 유지되는 질서, 혹독한 자연과 나라의 환경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의연히 받아들이는 여유와 느긋함 속에 존재하는 평화로움과 만족감.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내가 라오스에서 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공복으로서 도민을 위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배려!



## 통일을 염원하며

태국,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에 둘러싸인 인도차이나반도의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라오스”, 연수 전에 정치, 경제, 사회제도에 사전 조사하고 출발하였지만 우리나라의 60년대~80년대가 공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현지에서 알았다.

관광청 공식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유럽과 이웃나라에 비해 아직 많이 찾지 않고 있지만 차츰 증가추세이고(관광객수 세계9위), 관광 인프라 개발 보다는 현재의 자연환경 보전이 관광정책이라는 답변을 듣고 의아했지만 오히려 현재의 라오스에서는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해 봤다.

고산지대의 고산족의 해맑은 미소,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생활에 만족하는(행복지수 세계5위) 국민,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지만 현 생활에 만족하는 국민성에서, 경제수준은 높지만 경쟁속에서 살아야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청년실업문제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공산국가이면서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대외 개방을 받아들여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고, 나라살림과 주민의 삶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라오스와 비교해 볼 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개방된 북한을 생각해보며 통일을 염원해본다.

## ■ 라오스 관광의 주역을 만나고

라오스란 나라는 아마 우리 모두가 자연환경과 생활수준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모를 것이다. 나 또한 해외 연수를 가기 전에는 날씨는 무덥고 오랜 식민지와 전쟁으로 못사는 나라 정도일 것이라는 짧은 지식만 가지고 연수기간 중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짧은 연수기간 중 그것도 관광지란 제한적인 장소에서 느낀 생각이었으나, 라오스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아직까지도 순수함을 고이 간직한 채, 한 점의 때도 묻지 않은 순수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대다수 국민이 소박하고 친절하였다 생각된다. 바쁘고 여유가 없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벗어나 힐링하고 싶은 나라로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딱’ 이었다.

평소 생각과 달리 라오스는 국토의 70%가 산악국가라는 점도 이번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연수일정 중 루앙프라방을 출발하여 높은 지역은 해발 1,600미터인 고산지역을 미니버스로 7시간이나 걸려 방비엥을 방문하였는데, 이동 중에는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들었지만 마음은 진정한 힐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동 중간 중간 도로변의 고산지역 주민의 대나무집, 입고 있는 옷가지 등의 생활모습은 우리나라 1970년대 내가 살던 우리 동네시골 모습과 흡사하였다.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 모습에서 40년 전에 내가 살던 마을에 아저씨, 형님, 친구들과 내 모습을 회상하게 되어 무어라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의 묘한 기분이 들었다. 연수기간 중 어딜 가든 이러한 야릇한 마음은 계속되었다. 라오스 연수중 내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우리국민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연수기간 중 어딜 가나 집안 주차장, 도로위에 한국차량이 많았다. 현대·기아차가 도로 위를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으며, 라오스에 약 2,000명 정도의 교민들이 거주하는데, 라오스 전체인구 650만 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수이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식 음식점, 유흥점을 운영하는 교민들이 많았다.

라오스가 우리나라 국민이 찾는 관광국가가 된지 3년 만에 소수의 우리 교민들이 라오스의 관광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역시 단군의 자손은 대단하다고 느꼈다.

끝으로, 이번 여행은 평소 좋아하는 직원들과 함께하여 보람과 즐거움이 더욱 컸다. 여행이란 어디를 가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연수기간 중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팀장님, 부팀장님, 총무님 등을 비롯한 10명의 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다른 기준 수용과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벤치마킹이란 지금 내가 생활하는 곳과 비교해서 무언가 배울게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체험하여 배우고 오는 거라는 생각과 책을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우리가 익숙하게 접한 국가가도 아닌 라오스로의 국외연수는, 돌아와 연수 결과물을 작성해야하는 나로서는 사전 조사 할 때부터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적고 보는 시야가 좁아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하는 직원 다수가 원하는 곳인 라오스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비행기는 새로운 마음이 짐 때문인지 아니면 기체가 너무 작아서인지, 웬지 민첩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고, 작은 비행기는 긴 시간 밤하늘을 날아 비엔티엔의 왓타이 공항에 도착했다.

현지 날씨는 많이 더울 거라는 생각과 달리 우리나라 가을에서 초겨울 날씨와 비슷해서 간혹은 쌀쌀하기도 해서 몸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새벽5시30분에 진행되는 탁발행사에 참여할 때는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나는 4시30분부터 일정을 시작해야 했고, 루앙프라방에서 방비엥으로 가는 7시간의 산길 여정도 나에겐 조금 힘겨운 시간들이었다.

라오스는 시간이 멈춰지는 곳이라는 말이 어울리듯, 자연도 개발되지 않은 과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도 했지만, 비엔티엔에서 루앙프라방으로 이동하는 항공기에서 볼 수 있듯 출발시간 2시간을 넘기고서야 공항을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고도 어느 누구하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의 나라였다.

주어진 목표 이행과 짜여진 일정에 맞추지 못하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런 평가 속에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에겐 그런 여유가 있기에 행복의 나라, 힐링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었다.

그리고 그들은 부유하진 않지만 지금 가진 것은 과거의 연과 업으로 얻은 행복이고, 지금 아픈 것은 과거 업으로 얻어진 불행이라 여기며, 경쟁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에 뉴욕타임즈에서 방문 가치가 있는 세계 상위 53개 관광지 중에서 1위에 등극하기도 했을 것이다.

마지막날 탕루앙 사원에서는 그 사원의 회랑을 돌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에 “지난 과거에 대한 애착보다는 앞으로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내 기준으로 타인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소망과 함께 회랑을 걷는 것으로 여행을 정리하였다.

# 참 고 문 헌

- 박정호 저. 일상의 씬표. 라오스, 서울, 밥북, 2014.
- 후지타 아키오저. 꽃보다 라오스. 서울, 동아시아, 2014
- 장태구·곽구영 공저. 라오스의 문화와 경제,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2014.
-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 정보 : 라오스)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8/1\\_22918.jsp?menu=m\\_40\\_20\\_20](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8/1_22918.jsp?menu=m_40_20_20)
- 라오스 대사관 홈페이지  
<http://lao.mofa.go.kr/korean/as/lao/main/index.jsp>
- Lao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홈페이지  
[www.tourismlaos.org](http://www.tourismlaos.org)